



여수시, ‘장애발생 예방교육’ 추진

여수여중 시작 유치원·초·중학생 2천여 명 대상

“비장애인 편견 해소로 사회통합에 기여 계기 될 것”

여수시가 올해 관내 유치원생, 초·중학생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18일 여수여자중학교를 시작으로 관내 유치원 6곳 235명, 초등학교 12개교 1,700명, 중학교 2개교 160명 등 총 2천여 명이 참여한다.

교육은 국립재활원 장애예방교육을 수료한 휠체어를 탄 적수 장애 강사가 선전적으로는 비장애인이었던 자신의 사고사례를 소개하며, 건강한 신체로 힘차게 살아갈 꿈나무들에게 신체의 중요성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예정이다.

국립재활원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의 결과물인 ‘장애발생 예방 5계명’을 다함께 외우며 실천

을 다짐하는 시간도 갖는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 해소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장애로 인한 불편을 이해하고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올바른 태도와 습관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재활보건의팀(☎061-659-4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 초등학교 등 20개교 1,625명을 대상으로 장애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청각장애인 소송 때 수어통역 받기 쉬워진다...비용도 무료

앞으로 청각장애인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무료로 수어통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회의 의결에 따라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수어통역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규칙 및 형사소송규칙

을 일부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을 누가 내야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다. 현장 실무도 통일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소송과정에서 수어통역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용을 내기도 했다.

개정된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

규칙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 속기, 녹음 및 녹화 등에 관한 비용을 사전에 예납할 필요가 없도록 하고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형의 선고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도 수어통역 비용은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오는 2023년까지 금융권 ATM

‘장애인 범용’으로 100% 바꾼다



금융당국이 장애인 친화적 자동화기기(ATM)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모든 ATM을 시각·지체장애 등 모든 유형의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용 장애인 ATM’으로 바꾼다.

18일 금융당국은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이 설치한 ATM 중 시각·지체장애 지원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범용 장애인 ATM’ 설치비율을 오는 2023년 말까지 1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조업체가 범용 장애인 ATM 모델을 기본형으로 제작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ATM 총 11만5563대 중 장애인용 ATM은 10만1146대로 87.5% 수준이다. 이중 시각장애(점자표시·이어폰잭)·지체장애(휠체어용 공간 규격 준수) 지원 기능을 모두 갖춘

ATM은 5만4992대로 전체의 47.6%다. 시각장애 지원 기능만 갖춘 ATM은 4만3252대(37.4%), 휠체어용 규격만 준수한 ATM은 2902대(2.5%), 비장애인용 ATM은 1만4417대(12.2%)다.

지난해 말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의 전체 ATM 중 범용 장애인 ATM 비중은 77.4% 수준이다. 이 비중을 2021년 말 88.0%, 2022년 말 95.0%, 2023년 말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친화적인 ATM 이용환경도 구축한다. 우선 ATM 부스 앞 불필요한 문턱을 제거하고 ATM 부스를 건물내 가급적 장애인의 접근이 쉬운 곳에 우선 설치한다. 장애인이 ATM을 사용할 때마다 들어야했던 ‘장애인 ATM 이용 관련 자동 음성 설명’도 건너뛴 수 있도록 한다.

또 장애인용 ATM 설치 위치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장애인총연합회 및 관련 업권 협업을 통해 지도상에 장애인용 ATM 위치를 알려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마련한다.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 안내서 음성자료 배포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 복지 안내서...전자책도 제작 배포

보건복지부가 시각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접근 용이를 위해 올해 개정 발간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안내서를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함께 시각장애인용 음성자료(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로 제작해 배포했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안내서는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 등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제 디지털문서 규격인 디지털접근정보시스템으로 목차를 구분 변환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해당 안내서는 사회보장위원회 및 복지부, 복지रो와 국립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

다.

아울러 복지부는 온라인에서 생애주기와 대상별(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노령층, 장애인) 정책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하여 ‘전자책(e-book)’을 제작해 배포했다.

김민정 기자

내륙의 바다 ‘장성호’

수변 데크길(왼쪽)

옐로우출렁다리

NEW
광명빛출렁다리

NEW
수변 데크길(오른쪽)

장성호